

4년연속 도내 투자유치 '최우수'

익산시, 경기침체 속 투자유치 실적 인정... 미래산업 선도

익산시가 4년 연속 최우수 도내 투자유치로 전북 미래산업을 선도한다.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전라북도 주관 투자유치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 실적, 신규고용 및 투자규모, 투자유치 활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로 진행됐다.

시는 투자유치 실적 및 노력을 인정받아 도내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코로나 장기화 및 물가, 금리, 환율 이 상승하는 '고 현상'으로 인한 투자 침체 상황에도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4년간은 100% 분량을 완료하고 3년간도 97.6%의 분양률을 보였다. 평가 기간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미원상사, 제이앤엘 테크를 포함한 44개 업체와 8,800여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향후 2천여 명 이상 일자리 성과를 달성했다.

분양률 78.2%를 돌파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프롬바이오, 주원푸드 등 공장 착공이 이어져 향후 입주업체 가동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신성장 기술집약 기업유치에 주력해 수소 이차전지, 제약 등 미래 산업자형 개편을 본격화했다.

국내 수소산업 대표기업인 두산퓨얼셀은 작년 460억 원 규모의 증설 투자 이후 올해 10월 생산 공장의 증축을 완료해 연간 최대 생산능력을 275MW까지 확대해 나갔다. 올해 협력기업인 제이앤엘테크가 3년간에 입주해 증설 투자가 후속으로 이뤄져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또한 중견기업인 한솔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익산 제일반산단지 9만4,467㎡ 부지에 단계적으로 생산라인을 조성 중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마더스제약, 한소아제약, 원광제약 등 제약회사들이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국내 1호 청년시청 활성화할 것"

전국 청년정책 롤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참신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당부

정헌을 익산시장이 국내 최초로 개칭한 청년시청을 전국 대표 청년 종합정책 허브로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청년시청이 최근 운영에 돌입했다"며 "청년시청의 주인은 지역 청년들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신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뿐 아니라 복지·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익산 청년시청이 전국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개칭한 익산 청년시청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는 물론 각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은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부터 청년 창업인들의 입주 공간, 문화 말티공간인 '청년 아지트'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익산시의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시장질문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며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의회에 적극 관철시켜 필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시장질문에 대해 전 부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과 참고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 시민들에게 시장을 적극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백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는 만큼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연말 연시 공직기강이 헤아리지 않도록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새해 민생밀착 소통행정 '이청득심(以聽得心)' 강조

익산시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어느 때보다 행정 민감도와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각오를 담아 새해 사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선정했다.

새해 시청 길라잡이가 될 '이청득심(以聽得心)'은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민생밀착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올해 민선 8기를 맞아 경쟁과

소통 공감을 시장철학으로 삼고 '우리동네 행복버스 프로그램' 진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익산형 행정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경기침체 속 민생경제를 돌보며 핵심 4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역점사업들을 가시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속 가계경제 완충제이자 지역 선순환경제를 이끈 지역화폐 다이용은은은는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해 지역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

로 안착했다.

첫해 발행액 1828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504억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고 올해는 이달 말까지 5,7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해 나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올 초부터 국내 최고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12일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박윤기)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인재 육성 위한 든든한 후원자"

롯데칠성음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500만원 기탁

군산시는 12일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박윤기)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서 지난 1999년부터 군산에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1,500만 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현재까지 기탁한 누적 장학금은 4억3,5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군산 및 전북지역에서 판매된 '청하', '처음처럼' 등 롯데칠성음료의 주류 제품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됐으며, 군산지역의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중 롯데칠성음료 지방권 도매부

문장은 "군산 시민들의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뜻에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고, 군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교육발전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 매년 꾸준한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기탁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군산시민 및 군산시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롯데칠성음료에서 커피차와 기념품을 제공해 시민과 직원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2022 군산 명예전통명가 3개소 선정

군산시는 12일 2022년 군산전통명가 3개소(리복인플로체, 세정식당, 서해스튜디오)와 명예전통명가 3개소(원조뽕배이냉면, 토방의상실, 싸인텍)를 선정하고 전통명가 현판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군산전통명가 사업은 3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전통가게를 발굴·선정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군산전통명가 11개소 선정 이후 올해까지 28개소가 선정됐다.

전통명가는 지역성,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등을 포함한 선정지표를 토대로 소상공인 경영 분야 전문기부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현판 및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공식 SNS 채널 및 홈페이지, 리플렛 등을 활용한 홍보와 전문가 현장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지원금(군산전통명가) 등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9년 전통명가 11개소의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경영 상태, 시설유지 및 관리, 서비스 등을 현장 평가하여 재인증했으며, 앞으로 인증기간 만료 업소에 대해 매년 재심사를 통한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통명가 사업으로 선정업체가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외 예결위 2023년 본예산 심의 돌입

군산시의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수)가 12일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347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2.3%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3.5% 증가한 1조 4878억 원, 특별회계는 1469억 원이다.

특히 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본예산 심의가 실시되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및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과제로 하여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9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임준 시장을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별 부진 사업들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 7일까지 1조5,561억 원을 집행한데 이어 오는 12월 말까지 1,729억원 이상 집행해 하반기 적극집행 목표율 85%를 달성하고 올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투자사업과 민생경제 안정사업 등을 중점 집행함으로써 고물가, 고금리로 지역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